2020 윤리와 사상 뿌시기

안녕하세요 윤리충입니다. 윤리가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평가원과 수능에서 출제되는 소위 '킬러문제'가 교과과정에서 알 수 없거나 교과 과정 내의 필요 이상의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사소해보이는 선지, 개념을 비튼 선지 등 시험장에서 보면 어려운 선지들은 이미 연계교재나 기출에 내용이 충분히 실려 있는 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선지들을 맞추기에 조금 더 철저해지기 위해서는 선지의 중요도를 매기고, 선지를 익숙한 문제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연계교재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정답 선지 때문에 아까운 매력적 오답 선지들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리 뿌시기는 제시문이나 개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선지로 풀기라는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시문이나 개념도 좋지만 줄글로 있으면 솔직히 안읽게 되니까요. 적중은 걱정마세요. 미약하지만 이번 평가원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성과 신앙, 이이의 기질론 부분이 윤사 뿌시기에서 예상한대로 출제되었으니까요. 그럼 윤리 뿌시기와 함께 열공하세요!

각설하고 2020 윤리와 사상 뿌시기의 구성을 안내하겠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각 시즌별로 연계교재, 기출, 변형 문제의 ox선지를 담아보았습니다. 납득이 안가시는 부분은 해당 시즌의 인용자료를 직접 구해 병행하며 학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빠른 정답: 해설 보기 전 일단은 정오만 체크하고 충분히 고민해보라는 생각에서 답지와 해설을 분리했습니다.

-고난도 선지 뿌시기 해설: 교과과정 내의 내용과 더불어 교과 외의 흥미로운 내용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고난도 제시문 뿌시기: 제시문을 그대로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충분히 독해하시길 빕니다. 한 지문 안에 색깔이 다른 부분은 이항대립이거나 공통점이니 유념하시면서 심화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즌4엔 x)

시즌별 특징

vol1- 연계편입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선지들을 종합하였습니다.
vol2- 기출 편입니다. 금년 기출을 제외한 역대 기출 선지 중 엄선하여 골랐습니다.
vol3- 금년 기출 편입니다. 올해의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의 선지를 분석하여 트렌드를 깨우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분량 때문에 ebs 파이널의 문항과 자작 문항을 몇 문제 실었습니다.
vol4- 파이널 자작 변형입니다. 이전 시즌의 선지를 변형하거나, 제시문과 날개의 개념을 선지로 만들었으니 그저 맛있게 소화하시면 됩니다.

학습방향은?

풀면서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선지와 헷갈리는 선지에 1차로 밑줄 친 후 해설과 비교. 며칠 후 다시보며 또 틀리거나 납득 실패시 별표.
그 후 또 반복될 시 형광펜으로 칠한 후 관련 개념을 심화 학습하여 수능 쉬는 시간에 훑은 후 만점 받기
선지 뿌시기 말고도 제시문 뿌시기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수능 때는 선지 변형보다 제시문 변형이 더 킬러일 확률이 높아요.

2020 윤리와 사상 뿌시기 vol 2 기출편
연계/기출 고난도 자료

고난도 선지 뿌시기

동양사상
맹자는 도덕심은 생업이 안정되어야 형성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
주자와 양명은 모두 마음이 곧 성이고 성은 곧 이치라고 보았다 [2020수특] ( )
주자와 양명은 모두 마음의 모든 활동은 양지의 발현 때문이라고 본다 [2020수특] ( )
주자와 양명은 모두 마음은 선천적으로 천리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2020수특] ( )
주자와 정약용은 모두 사단을 확충해야 하늘이 명한 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0수특] ( )

불교에서는 나와 세상만물은 우연히 이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
노자는 통치자가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무위로 다스릴 때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된다고 보았다 [2020수특] ( )
정약용은 기질의 성은 사람과 동물이 같으나 도의의 성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2020수특] ( )
이이는 탁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20수특] ( )
맹자는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별도의 수양이 없이도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맹자는 순자와 달리 사람은 도덕적 옳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맹자와 순자는 모두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맹자는 대인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욕망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자라고 보았다 [2020수완] ( )
공자, 맹자, 순자는 모두 예는 인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하는 절도와 규칙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
양명은 마음의 본체로서의 양지가 곧 천리라고 보았다 [2020수완] ( )

주자와 양명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는 인의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이황은 이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이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라고 보았다 [2020수완] ( )
이이는 천지의 변화와 마음의 발현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보았다 [2020수완] ( )
정약용은 인간과 동물의 기질지성은 다르지만 본연지성은 같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정약용은 인간과 동물의 성에는 모두 도덕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정제두는 주자에게 사람이 도덕판단과 행위의 주체임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2020수완] ( )
정제두는 주자에게 천리는 외부사물을 탐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2020수완] ( )
이항로(위정척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을 기반으로 외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불교에서는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불교에서는 정과 혜를 닦아서 정신적 쾌락을 향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 보살을 열반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수완] ( )
지눌은 올바른 선 수행을 위해서 교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원효와 의천은 모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의천은 지관을 바르게 닦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불교에서는 열반을 사물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상적 경지라고 보았다 [2020수완] ( )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상호 의존하면서 생멸을 거듭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장자는 도는 인간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도교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주어진 수명을 잘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노자는 공자와 달리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2020수완] ( )

고난도 선지 뿌시기 빠른 정답

동양사상

xxoxo xxxxx xoxoo
xxooo xoxxo oxoxx
xooox xooox o

서양사상

xoxxx xoxoo oxxxx
xoxxx xooxo xoxox
ooxxx xxxox xxxox oooxx

사회사상

xxoxo xoxxx oxxxx
ooxxo

고난도 선지 뿌시기 해설

1. 둘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공자는 부가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인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보았다. 재화가 고르게 분배된다는 것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말은 아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부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고르게 분배하는 것은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똑같은 부를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인 공산사회를 이상사회로 보았는데, 이 역시 균등분배와 거리가 멀다. 각자의 필요에 대한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배고픈 상태의 A와 배부른 상태인 B가 있을 때, 균등 분배를 적용하면 둘 모두 빵 세 덩이를 지급 받을 것이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적용하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A가 두 덩이, B가 한 덩이를 지급 받을 것이다.
2. 둘 모두 긍정할 내용이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의 공통된 특징이며 '토지, 공장 등과 같은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특 176p) 민주사회주의는 계획경제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우선하지만 일부 영역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긍정하였고,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이 소멸한 사회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였다.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 계급, 국가 등이 소멸 했기 때문에 계획경제라는 표현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분배의 주체가 꼭 정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도 공유재산을 사회가 관리하는 계획경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3. 셋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마르크스와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했고, 노직은 분배의 결과를 규정할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배의 절차를 규정할 과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에 부정의가 개입되지 않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취득, 양도, 교정에 의해 교환된 재화에 대한 소유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능력'에 따른 분배도 결국 분배의 결과를 규정하는 정형화된 원칙이므로 노직이 부정할 것이다.
4. 양명은 심즉리설을 주장하며 심외무리 심외무물, 즉 마음 밖에는 사물도 이치도 없다고 하였다. 양명에 따르면 마음이 곧 천리인 양지이다. 그러한 양지를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히 실현하면 사물 하나하나는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고 보았다. 이치를 밖에 있다고 본 것이랑은 구분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말하자면 주자는 사물을 관찰하며, 즉 사물로부터 이치를 얻는 것이므로 귀납법과 비슷하고, 양명은 이미 내재해있는 양지를 사물에 실현해야한다는 입장이므로 연역법과 비슷하다. 물론 귀납과 연역은 단지 예를 들기 위해 설명한 것이므로 조금 다르긴 하다.
5. 도가의 입장에서 현자는 숭상의 대상이 아니다. 도가에서는 인의를 쌓은 현자를 숭상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을 쌓아올리는 것보다는 무위자연을 실천하여 소박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6. 플라톤은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이다. 선의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인식되는 것이기도 하다.'(수특 78p)라고 하였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데아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플라톤은 살아있을 때에는 육체 때문에 완전한 이성적 인식을 할 수 없고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면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보았다.
7.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행복이 덕을 따르는 활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덕을 따르는 활동이어야 한다. 최고의 덕을 따르는 이성의 활동은 진리에 대한 관조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관조 활동을 할 때 행복해 질 수 있다. 행복은 순수한 관조에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관조 속에 깃들어 있다.'(수특 80p)라고 말하였다.
8. 플라톤은 이데아는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현상계와는 달리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9.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고, 용기란 신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 내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며, 정의란 오직 신만을 섬기며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통치하는 사랑이다'(수특 91p)라고 하며, 플라톤의 사주덕을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으로 환원시키고자 하였다.
10.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생활을 피하고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을 주장했다.
11. 홉스는 '인간은 자연상태로부터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의 일부는 감정에서, 일부는 이성에서 비롯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지향하도록 하는 감정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그것들을 손에 넣으려는 희망이다. 그리고 이성은 사람들이 동의에 이를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조항들을 제안한다.' (수특 102p)라고 하였다.

고난도 제시문 뿌시기

자연은 안에 있고, 인위는 밖에 있으며, 덕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멸하지 않고, 고의로 명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해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장자(201706]

무릇 사람의 감정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며, 상을 당해서는 슬퍼하며, 가까운 사람을 보고서는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보고서는 그와 똑같아지기를 바라니, 이것들이 희, 애, 오, 욕의 네 가지 감정입니다. 바로 인의 실마리인 것입니다. -이이(201106)

어떤 쾌락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의 양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쾌락대신에 다른 쾌락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밀(201809)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로크(201806)

이치에 감정과 의지 그리고 조작이 없다는 것은 그 본체가 그렇다는 것일 뿐 그 쓰임의 차원에서 보면 이치는 그 만나는 곳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러울 뿐 이치가 스스로 이를 수 없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황(201706)

정의 선한 측면은 맑고 밝은 기를 타고 천리를 따라 곧바로 나오니 그것이 사단이다. 정의 불선한 측면 또한 이에 뿌리를 둔 것이지만 이미 더럽고 흐린 기에 가려져서 이를 해치니 사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성이 아닌 또 다른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이(2012수능)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지만, 쾌락 때문에 더 큰 불쾌가 초래될 경우 우리는 그 쾌락을 포기한다.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간 뒤에 더 큰 쾌락이 따를 경우, 우리는 그 고통을 쾌락보다 낫다고 본다. -에피쿠로스(2016수능)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없으면 예악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현명한 임금은 덕으로 정치를 행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신하는 도로써 임금을 섬긴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자(201809)